대학원생 세미나 13.08.12

리딩: 조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 메를로 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에 대한 강해>(이학사, 2004)

발제: 송지예, 정은희, 용채영

도종윤: 몸과 정신에 대한 일원론. 익숙하지 않은 것인데 일원론에 대한 설명될 수 없는 것. 몸과 세계가 하나로서 인식된다는 것. 구체적인 설명. 안다. 감각과 관련. 육체와 감각은 하나임. 몸은 왜 움직이나? 직관적으로 안다. 운동할 때. 운동선수들은 그냥 몸이 움직임. 조절하지 못함.

최은실: 몸이라는 체에 주체성을 부여했다. 이전의 철학사에 대해서 지각의 판단. 입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오감. 몸이라는 것, 정신의 장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

도종윤: 몸. 육체라는 몸. 몸은 구체적, 그러나 몸에 대한 이야기는 추상화, 일반적인 것임. 개인들의 몸은 다 다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화된 몸을 이야기하면서 개별성 포함. 선천적으로 장님인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을 모르고 일반인들과 살아감. 내가 파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알게 됨. 그것을 본다라는 것을 알게 됨.

자기 일상의 모든 체화된 관념이 세계를 투영하는 기저가 되는데, 이는 모든 사람들과는 다른 기제임. 안들리는 상황, 보지 못하는 사람. 메를로 퐁티는 몸이라는 것으로 보고자 함. 그런 개별성들을 파악을 해서 메를로 퐁티가 이야기하는 의도에 넣는가? 그런 것들이 무의미하다? 신체 장애가 무의미하다?

몸은 물질. 통시성보다는 공시성이 강조됨. 지평이라는 것. 과거적인 것, 역사상의 문제들. 몸으로 파악되기 어려운 지평은 어떻게 인식하나?

송지예: 인과성 부정. 뇌의 하나의 회로가 단절되어 있을 경우, 뇌의 전체 기능 자체가 변한다. 가시적으로 보면 하나의 회로인데, 그 하나의 회로가 부정되었을 때 인과성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에 종합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완전히 감각기능이 부정된다. 눈이 안보이면 귀가 더 발달. 오히려 더 혼란을 느끼고, 인식체계. 눈을 감고 생활. 지각, 하나의 감각기관이 하나가 없다고 해서 일반인들과 대조해서 보았을 때 떨어진다는 것은 아님. 또 다른 감각기관이 보충하거나 통합적으로 발휘한다. 몸이 왜 비완성적인가? 전체세계를 종합하면서도 여러 감각기관을 종합한 것이 몸에 있는데.

최은실: 세계를 내 안에서 이미지로 구축. 세계 자체가 내 안에서 비추어서 본다는 것은 이해. 세계 구성에 있어서 세계는 완성적, 이론적, 언제나 변화가능. 개별성에 따라 이해. 사물과 대상 간의 관계. 나와 세계의 문제. 타자와 타자 간의 상호주관. 나는 나의 감각, 내가 인식세계로 다 다르다. 계속 변화한다.

지예: 기존의 상호주관성이랑 다름. 내가 다 이해한다.

도종윤: 상호주관성이 하나로 통일화되어 가는 것처럼 이해한다면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이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당위적 관념이 있지도 않음.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 목적론적인 것은 아닌듯. 육체와 관련되어서 몸이 하나하나 조건이 다르다라는 것은 원점. 결국 개별주체에 대한 이야기로 가는 것. 삶에 대한 것, 의문점. 사회적 주체로는 수렴되기 어렵다. 사회적 세계에서의 collective identity에서는 현상전반이 그러하지만 삶의 기반, 이해방식의 추구해가는 현상학. 역시 마찬가지로 다 다름. 현상학적으로 각 신체가 경험하는 바가 다른데. 대한민국이 육체로 지각하는 세계를 수렴해서 만들 수 있는가? 국제정치적 현상에서 메를로 퐁티의 문제. 전쟁을 겪은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collective identity의 문제. 육체적으로 굉장한 고통이 있었음. 그들이 가진 육체적인 문제가 사회, 일본을 바라보는데 삶의 기저가 다름. collective identity가 다름. 다른 육체적 조건이라도 공통된 육체경험으로 체화를 했다면? 식민지 문제. 식민지 겪은 세대들, 전쟁 겪은 세대들이 정치적인 속박을 받는 사회집단이라면 육체의 문제는 국제정치문제나 사회전체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되지 않나. 사회에 대한 이해방식으로서 몸은 하나의 perspective로서 이해. 국제정치적으로 적용된다? 하나의 관점으로서 되는 것인지, 문제의식을 잡는 motivation이 되는지.

지예: 일원론 관련. 완전한 일원론이 아닐 수도 있다. 환상지가 있음.

도종윤: 이후에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 이후에 신체가 분리된 사람과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과도 다를 듯. 여기서 몸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 치매? 정상적인 몸이다 아니다. 뇌하수체의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시각의 경우. 처음부터 없다면 없다는 것 자체를 느낄 수가 없을 것. 당뇨. 진단을 원래 받을 것. 인식이 다르다. 안보인다, 안들린다.

최인호:궁극적 모든 앎, embodied mind로 수렴될 수 있음. 우리는 이 화가가 그린 사과가 독사과인지 안닌지 몸으로 알 수 있나? 지평의 이야기. 시각으로 검사? 체화. 상식적으로는 생각. 결국 다 몸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인가? 뭘 더 도움이 되는가? 몸으로 다 알 수 있다는 것인가?

도종윤: 현상 설명. 고문을 당하는 사람. 내가 내 스스로 몸을 기저로 현상을 인식하는 가. 공감하지 않음. 이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는 지평으로서 의미를 뭐가 있는가? collective identity를 만들 수 있는가? 그들의 주체성이 문제로 간다는 것. 정신대. 육체적 실현을 겪으면서 얼마나 피폐화되는가.

송지예: 이분법 반대. 몸에서 자유로운 의식이 있다. 몸에서 배제된 경험세계. 객관세계를 상정한 가운데 의식과 반대된 물질을 거부. 둘 다 비판하고 몸 안에서 통합하려는 시도였다. 다리가 절단됬다. 절단되었음을 인지하는 자아와 그렇지 않은 자아. 다리가 부재하는 자아가 인정하기 싫지만 인지가 되어지는 두 가지 현실이 몸 안에서 일어나면서 전과 달리 인정. 현실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몸 안에서의 인식과 이미 실천되면서 다가온다.

최은실: 과거의 것, 몸으로서 전달됨. 몸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고정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몸으로 전달될 수 없는 것. 위안부 문제, collective identity. 공감. 몸에 가한 충격과 상처, 내가 몸에 무엇인가 있었을 것이라는 전달은 있을 듯. 그렇다면 가치, 판단의 문제. 위안부 문제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나쁜 것이다. 식민지화는 나쁜 것이다. 이미 받아들인 전제도 몸으로 느낄 수 있음. 통합적인 것이 없으면 안 됨. 이미 몸에 의해 체화된 것이나 아닐 수도 있는 것들이 있을 듯.

도종윤: 공감. 위안부가 노에마라면 다가가려는 것이 노에시스일 수도 있음. 그런 것들을 현실에서 접하는 것은 field work. 우리가 노에마로 다가가려는 것이 좋을 듯. 다시 주체성의 회복임. 월츠는 다 단위임. 장기판. 어떻게 뛰어들어 가는가? 왜 부딫치고, 그 사회를 직접적으로 경험해보기. 짧거나 단편적이지만 몸으로 경험해보는 것. 위안부 문제는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것. 공감의 노력은 진행함. 그런 경험담, 전파의 노력. 이야기를 듣고 하나 받아서 소화해서 전파하려는 노력.

최인호: 양방향. 상대방에 대해 이해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 만나서 떨림. 내 몸이 같이 병행되어서 있음. 나와 관련된 조건이 연관된 것. 내가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얻게되는 지식이 달라짐. 같은 국제정치여도 현실주의자여서 한국이 가진 전쟁. 겪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르다. 이를 절실하게 느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지식을 절실히 하는 것. 인류학적으로 의식, 나의 몸을 개발하는 것.

정은희: 모든 주체, 모든 개별적 몸과 만날 수 있는가? 나의 인식으로 주어지든, 가치문제. 위기상황이다 부도덕하다. 그런 판단이 전제되어 있지 않을 때 타인의 문제를 공감할 수 있는가? 그런 개별성을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중요한 것이 있지. 모든 세상의 주체들을 포괄할 수 있는 것에는 한정이 있음. 최소한 그런 것. 내가 나의 세계와 다른 세계들의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남과 여의 차이. 몸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의식만 다른 것이라면 다름. 남자 군대 다녀옴. 판단, 경험이 성적인 차이에서 오고 있음.

도종윤: 성적 판단. 사회적으로 남녀 신체적 구분. 성 구분. 사회가 만들어 간 부분도 있지 않나.

송지예: 문명, 사회가 다르다. 몸의 연관된 작용. 사회적으로는 여러 층을 거쳐서 쌓여있음. 이미 몸의 작용들이 있다.

최은실: 몸과 마음으로 세계 이해. 유아적인 것에만 더 인식. 이후에는 교감, 공감하는 범위가 어려움. 어린아이들은 사회적인 것보다 오감으로 느끼는 세계를 더 자기의 세계라고 인식함. 퐁티, 순수한 세계의 ideal type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성. 내가 생각하는 남성/여성의 구분이 다름. 어린아이로 넘어갔을 때 이미 커가면서 몸으로 인해 인지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내가 사는 세계를 몸으로만 다 이해하기 어렵다.

정은희: 어른과 아이. 세계라 몸이 상호작용. 내 안의 체계의 축적도, 깊이가 다를 뿐이지 매커니즘은 다르지 않은 듯.

최인호: 몸에서 나오냐 사회적으로 나오냐? 이미 달라짐. 이미 사회적으로 embodied mind가 있고 개별적인 embodied mind라는 것은..?

도종윤: 현상을 인식하는 것. 몸이다라는 것이 깔려있는 것은 벗어나기. 체화된 인간들, 그 인간군집은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들의 세계는 연구 대상? 테러집단, 위안부, 트라우마 가진 집단. 육체적인 집단들이 변수화 될 수 있다 그 근거? 장동건의 얼굴인 대통령. 변수가 될 수 있는지?

최인호: 체화가 집단화. 체화의 정도를 알 수 있나? 기분이 통한다. 일본인들은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체화되어 었다. 뭘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도종윤: 선술어적인 영역을 술어적인 걸로 알아야 함. 몸의 매커니즘을 알 수 있는게 뭐냐? 현상학을 방법론으로 보는 것 결국 체험. 환자들 상태로 한 체험. 어떤 변수에 대한 의식이 무엇인지, 반응. 변수의 구체성에 따라서 측정 다를 듯. 이 책은 전반적인 의미에서 육체를 구체적으로 정치적인 걸로 끌어올 수 있는 게 뭔지?

송지예: 인류학 연구. 연구 대상과 연구자의 관계변화. 내 몸이 거기 실존함으로써 되는 것인데. IR에서는 그런 것? 4.19 연구하면서 처음과 시각이 달라지면서 이후 시각이 달라졌다. 내가 특정 사회의 연구에서 특정 인종집단에 폭행을 당했을 경우, 그 이전의 trauma가 결정짓는 것. 연구 논문 안에서는 드러나기 힘듬.

도종윤: 질적연구는 이미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는 전제 하에서 참여. 과학적, 칼로 잘리는 것이 다 반대. 그 안에서 깊은 철학적 사유가 있음. 상대주의, 절대주의 관념. 연구자들의 관심에 있음. 철학체계 내 에서의 research의 태도, 대상, 취지, 결과도 다름. 그 읽는 독자의 해석방법도 차이가 있음.

최인호: 세잔. 수동적 측면? 대상에 참여해서 보는 것, 대상의 주체성을 복원해가면서 하는 것.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저 대상의 삶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인가? 참여를 하되 여전히 나의 관찰자의 주체성도 가지면서 제 3의 영역.

도종윤: 타인의 영역에 기투해나가는 것. 몸을 통한 체화. 지식의 차원으로 끝내야 하는 것? 그 다음은 찾아야 함. 현상학의 의미. 그 안에서 삶에 대한 이해를 한정해야 하지 않나?

최인호: 대상일반에 대한 이해보다 삶의 이해측면을 중시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 불교와도 상통하는 듯.

정은희: 그럴 수도 있겠다.

도종윤: 삶의 내면화에 익숙해져 있는가? 사회과학에서 만들어 내는 질문은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

인호: 기본적 pose가 국제정치 대상 이해.